천혜 촬영지 표방 제주 '명작' 마케팅 언제쯤…

3년간 로케이션 증가에도 관련 예산은 감소세 보여 '제주산' 홍보 작품 드물어

저지리 실내스튜디오 연계 '전천후 촬영지 제주' 추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조성되는 실내영상스튜디오의 조감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일부 지자체가 '기생충' 촬영 장소를 내세우며 마케팅 전략을 언급하는 가운데 일찍이 영상 산업에 뛰어든 제주는 언제쯤 '명작'을 품을 수 있을까. 제주에서 또 다른 봉준호를 키워낼 수 있을까.

제주특별법에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명시해 놓은 제주엔 2018년 4월 출자출연기관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개원하기 이전에 제주영상위원회가 있었다. 2004년 출범한 영상위는 진흥원(영상산업팀)으로 통합 흡수되기 전까지 제주 영상산업을 담당하며 영화 제작 지원, 제주 로케이션 활성화 등을 모색했다.

제주 로케이션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꾸준히 유치가 이루어졌다. 제주영상위 시절을 포함 최근 3년간 로케이션 실적은 2017년 82건, 2018년 86건, 2019년 92건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등을 통해 제주 로케이션 인센티브, 기획개발 레지던스 등을 알리며 촬영 유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로케이션 예산은 2017년 3억, 2018년 3억, 2019년 1억7500만원, 2020년 1억5300만원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다. 로케이션 비용이 사전 심사 방식에서 2018년부터 사후 지원(최대 5000만원)으로 바뀌면서 제작사 측에서 별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완성되는 '제주산' 작품도 그만큼 드물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실내영상스튜디오가 지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실내스튜디오는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한 야외 로케이션과 연계해 제주를 전천후 촬영지 제주로 가꿔가겠다는 목표 아래 건립된다.

1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2개동을 갖추고 실시간 편집 시스템, 크로마키 촬영 등 신기술 기반 스튜디오로 가동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원스톱 촬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주지역 촬영 인프라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제작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지원사업 시행만이 아니라 실내스튜디오 운영 과정에 도내 영화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진흥원의 강태수 영상산업팀 책임연구원은 "현재 실내스튜디오 개관에 맞춰 제주 로케이션이 끝나면 실내 작업과 이어지며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드라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영화인들이 실내스튜디오 이용 시 소외되지 않도록 일정 대관 비율을 할당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2020 제주비엔날레 한달 늦춰질 듯

준비기간 등 감안 6월 개막 한때 8월 개최 의견도 제기 자문위는 벌써 3명이 교체

2020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제시한 당초 일정보다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6월 중순으로 일정을 바꿨다.

주최 측인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을 나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할망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세다'(가제)란 주제 아래 5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비엔날레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수정됐다. 남은 기간이 촉박해 비엔날레 일정을 8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도립미술관에서도 2월 예정이던 제주도의회 업무 보고 자료집에 두 번째 비엔날레를 8~11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다시 변경됐다. 참여 작가 일정, 예술감독 선임 기간 연장 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일정을 변경하되 그에 따른 부담이 적은 6월 중순으로 최종 일정을 못박았다.

도립미술관은 이에 맞춰 조만간 비엔날레 운영대행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용역 업체 계약은 3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지난해 7월 꾸려진 2년 임기의 비엔날레 자문위원들도 그해 12월과 올 1월에 걸쳐 3명의 위원이 잇따라 사임했다. 3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 자문위원회는 이달 26일 2020년 제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진선희기자

대정읍 6개 마을 삶과 도구 한곳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대정읍' 일곱 번째 총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2013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일곱 번째로 최근 대정읍 편을 냈다.

총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조금씩 사라져가는 제주 민속 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애월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차례로 돌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정읍 편에는 가파리, 상모1리, 신도1리, 신평리, 안성리, 영락리 등 6개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와 지역민 대면 조사 결과를 담았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식주 생활 도구를 비롯 농업, 어업, 축산업, 양봉업 등 대정 지역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조사 현장에서 채록한 내용을 전사한 후에 분야별로 모아 정리하고 표준어 역을 달았다.

특히 자료집에는 저장과 운반류로 분류된 항·허벅류 등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도구에 대한 제보자의 구술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엔 구술 자료를 통해 도구의 쓰임새를 설명했다. 부록으로 가파리 강순화·안성리 이춘인씨의 도구 이야기를 각각 실었다.

비매품. 문의 064)710-769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19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좁녜 꼴멘, "ᄋᆞ멩이야- 소웽이 불리 싯친 거 너러뒨 왓저게."
ᄋᆞ멩이 꼴멘, "누님- 제주어 시집 '허천바레당 푸더진다'(시인 양전형 저, 2008. 다층)엔 ᄒᆞ는 책 소곱이 신 글귀 어떵 하영 남앗수광?"
좁녜 꼴멘, "아니여게. 들어보라. '허천바레지 말앙 뎅기라 푸더진다/ 푸더지민 코도 멜싸지곡/ 데멩이도 벌러지느녜/ 놈덜이 눈꿀인 안ᄒᆞ카부덴 ᄒᆞ염시냐/ 저 동녕바치 바리라/ 하영 푸더진 서늉광/ 놈이 집 대문만 홀긋이 바리단 떡 ᄒᆞ나 주난/ ᄒᆞᆫ 입에 온차로 먹엄시녜/ 오죽 기리와시민 경ᄒᆞ커냐/ 부지런히 오몽ᄒᆞ여사 사름뒈느녜/' ᄋᆞ멩이야- 이제 ᄃᆞᆫ ᄆᆞ첫저. 글귀추룩 우리 ᄃᆞᆫ 부지런ᄒᆞ여야 뒈크녜. 나가 소웽이 불리 몰라신가 봐사켜"

*** 제주어 풀이**

*허천바레지 말앙 뎅기라 푸더진다 : 한 눈 팔지 말고 다녀라 넘어진다.
*서늉 : <이름>사람의 모습이나 형상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꼴, 모습, 모양, 맵시, 몰골' 따위의 뜻.
*하영 푸더진 서늉광 : 많이 넘어진 꼴 하고는.
*놈이 집 대문만 홀긋이 바리단 떡 ᄒᆞ나 주난 : 남의 집 대문만 오래 쳐다보다 떡 하나 주니.
*ᄒᆞᆫ 입에 온차로 먹엄시녜 : 한 입에 통째로 먹잖아.
*오죽 기리와시민 경ᄒᆞ크나 : 오죽 먹고 싶었으면 그러겠느냐.
*부지런히 오몽ᄒᆞ여사 사름뒈느녜 : 부지런히 움직여야 사람 되는 거란다.
*ᄃᆞᆫ ᄆᆞ첫저 : 다 마쳤다.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문화가 쪽지

산지천갤러리 기획전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2회 이상 전시 기획 경험이 있는 기획자에 한한다. 산지천갤러리 2~3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제주의 가치와 정신을 독창적인 시각언어로 시각화할 수 있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뉴미디어 등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면 된다. 기획전 시행 기간은 4~6월로 전시 지원금 2000만원이 제공된다. 접수는 이달 20일까지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25-1207.

제주올레 돌며 환경 드로잉

사단법인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낮 12시 30분부터 5시30분까지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환경 드로잉'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 바다, 오름 등을 따라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올레 전체 구간을 기본 동선으로 매월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인터넷 블로그(wdlspace.blog.me) 등 참고. 문의 070-4065-2708.